

# “광주 학생 ‘시험지 유출’ 피해 없게 해달라”

### 광주교육청 ‘낙인’ 차단 총력 전국 대학 입학처에 협조공문 교육부는 9월까지 전수 조사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사립고에서 불거진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의 불똥이 광주 전체 학생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시험지 유출의 경우 특정 학부모와 학교 행정실장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광주 전체 학생들의 내신성적 등 대입 전형 요소는 엄격하게 평가·관리된 만큼 다가올 입시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선 안 된다고 교육부 및 각 대학 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 시험지 유출 ‘낙인’ 차단 안간힘=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3~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전국 4년제 대학 측에 시험지 유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광주 전체 고교 대입전형 요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지 유출이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학운위원장)와 행정실장의 일탈로 나머지 전체 광주 학생들의 내신성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대입 박람회장을 통해서도 광주 전체 학생들과 이번 사건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입 진로 진학박람회’ 참여 116개 대학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광주 전체 고교생의 입시 전형요소는 공정하게 관리됐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부터는 서울 주요대학과 광주·전남권 대학에 장학사와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단 등을 보내 이번 사건을 설명

하고 사건과 무관한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난 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초 수시 1대1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 시험지관리 일원화·인쇄실 CCTV 설치= 광주시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광주일보 2018년 7월 20일자 6면>과 별개로 교육부도 고교 내신 시험문제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올 9월까지 중·고교 시험지 관리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인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출제·인쇄·보관·시험 등 단계별 주의사항을 규정한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지점을 점검해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학교에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출제와 인쇄·보관 등을 한 곳

에서 진행하는 등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는 데도 뜻이 모였다.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 처벌규정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사가 아닌 행정실 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세화하기로 했다.

한편 수사 착수 10일째를 맞은 경찰은 시험지를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를 캐려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학교와 행정실장, 학부모 및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주거지, 차량, 계좌, 통신 압수수색에 이어 나머지 가족과 친인척을 상대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시험지 유출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학부모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했다. 경찰은 ‘빼돌린 시험지를 집에서 직접 편집해 아들에게 건넸다’는 해당 학부모 진술을 배제하고 기말시험 부정행위에 관여한 또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22일 오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주포항 인근 해상 양식장에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 돌돔의 사체가 물 위를 가득 덮고 있다. /연합뉴스

## 온열질환자, 가축·어류 폐사 급증...광주·전남 폭염 피해 눈덩이

12일째 35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에서 온열질환자, 어류·가축 폐사, 아파트 정전 등 폭염 피해가 늘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함평군 앞바다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전남지역에서 폐사한 가축은 지난 20일 기준 155농가, 18만 3000마리로 피해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온열질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까지 광주에서는 29명, 전남에서는 1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만 전남지역에서 9명(열사병1, 열실신1, 열경련1, 열탈진6)이 아사했다. 지난 21일 밤 10시 16분께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삼익1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9개 동 756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전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던 변압기가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도 경신됐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우리나라 전체 1일 전력수요는 8808만 kW로, 2016년 8월 12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8518만3000 kW 보다 3.4% 높았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

#### 남성 불임 원인 밝힐

#### 정자 안정화 단백질 첫 규명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남성 불임의 원인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조정희 교수·김지태 박사과정생 연구팀이 정자의 머리와 꼬리를 이어주고 안정화하는 특이단백질을 처음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자는 꼬리의 움직임에 이용해 이동한다. 오로지 생식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정자의 고유한 발생과정에는 특이단백질이 관여한다.

정자 특이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남성 생식 현상이나 정자 기능·수정 능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연구팀은 정자 특이단백질인 ‘SPATC1L’이 정자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살폈다. 이 단백질은 포유류(생쥐) 정자의 머리와 꼬리를 잇는 연결 부위에 존재한다.

다른 단백질(액틴 단백질)을 조절해 연결부위 골격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거쳐 SPATC1L 단백질이 발현하지 않게 된 생쥐의 경우 모든 정자의 머리와 꼬리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해당 수컷은 완벽히 수정 능력을 잃게 됐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엠보 리포트(EMBO Reports) 19일 자에 실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달뜨기 16:00  
해질 19:43    달짐 01:52

#### 대서

해안가 바람 강하고 파도 다소 높겠다.

광주	구름많음	26/36	보성	구름많음	25/35
목포	구름많음	27/35	순천	구름많음	26/35
여수	구름많음	26/33	영광	구름많음	26/35
나주	구름많음	25/36	진도	구름많음	26/34
완도	구름많음	26/34	전주	구름많음	26/35
구례	구름많음	25/36	군산	구름많음	25/33
강진	구름많음	25/35	남원	구름많음	24/34
해남	구름많음	25/35	흑산도	구름많음	25/30
장성	구름많음	25/3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면바다	동~남동	1.0~3.0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2.0	남동~남	0.5~1.0
	면바다(동)	동~남동	1.0~3.0	남동~남	1.0~2.0
	면바다(서)	동~남동	1.0~2.5	남동~남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14	16:18	10:34	23:45
여수	00:01	11:55	05:43	19:00

####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26/36	26/35	26/36	26/36	26/35	26/34	25/34

## 세월호 국가배상 판사 알고보니

### 광주 ‘도가니 사건’ 엄벌 끌어낸 재판장

#### 장흥 출신 이상현 판사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장흥 출신 이상현(51·사법연수원 26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새삼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세월호 재판에 이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도가니’ 사건 등 굵직한 재판장을 맡은 이력 때문이다. 이상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친부모에게 각 4000만원씩을,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4년만에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12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엔 정부가 방산비리 피해와 관련해 무기징역에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낸 2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국민적 관심을 또한번 받았다.

한편 장흥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남원지원, 장수군·순창군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